

“평화 기원 훨훨~” 함평군, 임진각서 나비 날리기

6·15 공동선언 기념 615마리 날려
이상의 군수 등 참여 간소하게 치러
“간절한 염원 복측에 전달되길”

나비의 고장 함평군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나비 날리기 행사를 열었다. 함평군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함평 나비 날리기 행사’를 14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상의 함평군수, ‘나빌레라’를 부른 가수 서정아씨 등 주요 인사만 참석한 채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다.

함평군이 직접 키운 호랑나비와 배추흰나비, 암 끝검은표범나비 등 총 615마리의 나비가 임진각 상공을 수놓았다. 6·15 공동선언 20주년과 임진각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행사에 사용될 나비 수를 615마리로 정했다. 함평군은 지난 2018년에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를 연 바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평화를 의미하는 나비가 현재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잘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함평나비를 통해 복측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화 기자 hwang@kwangju.co.kr



6·15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이상의 함평군수, ‘나빌레라’를 부른 가수 서정아씨 등이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나비를 날리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전통정원 특구’ 담양군 1단체 1화단 숲돌보미

55개 단체와 협약 맺고 운영

전통정원 특구를 선언한 담양군이 군산림조합을 비롯해 55개 단체, 주민과 함께하는 ‘1단체 1화단 숲돌보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55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참여해 나무를 심은 식재지와 주민 참여 숲 조성지를 중심으로 화단을 지정해 관리하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꽃과 나무가 있는 가로화단과 소공원을 관리하며 공동체 의식과 애郷심을 키우고 연말에는 화단 가꾸기 경연대회를 열어 스토리텔링과 실적이 우수한 3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100개 단체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담양군은 유관기관과 단체에 보낸 군수 서한문을 통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전정 작업을 자제하고 가로수나 보호수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흙을 덮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14일 “전통정원 특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양=노영민 기자 nyc@kwangju.co.kr

장흥 용산농협

올벼쌀 손 모내기 실시

장흥 용산농협(조합장 김성용)은 최근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용산면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올벼쌀 채종포단지 조성을 위해 손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용산농협이 수년째 생산하고 있는 올벼쌀을 최고의 맛으로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올벼쌀은 백설찰 품종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생산하는데, 백설찰은 2년 정도 지나면 퇴화가 진행돼 원래의 맛과 품질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용산농협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백설찰 500g을 육묘해 200평 채종포단에 직접 손 모내기를 하게 됐다. 여기서 생산된 올벼는 내년엔 종자용으로 생산농가에 공급, 올벼쌀을 생산하게 된다.

용산농협은 전통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올벼쌀을 2006년부터 가공·상품화해 전국에 택배로 판매하고 있다. 추석 차례상에 햅쌀을 올리고 싶은 조상의 슬기에서 시작된 올벼쌀 생산 프로젝트는 해마다 추석명절 선물로 인기가 있다.

또 전통방식의 딱딱한 올벼쌀의 단점을 보완해 특허출원한 ‘스틱형 부드러운 올벼쌀’은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레저용 식품으로 골프·등산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겉바면에 1봉씩 넣어 먹어도 맛이 일품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백아산·한천 자연휴양림 부분 재개장

숙박시설 하루 3분의 1만 운영

화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임시 휴관했던 백아산자연휴양림과 한천자연휴양림을 지난 11일부터 부분 재개장했다. 다만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숙박시설은 하루 3분의 1만 제한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휴양림 예약은 ‘숲나들e’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화순군은 재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청소, 방역·소독을 시행했다. 모든 입장객의 발열 체크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 운영할 방침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은 휴관 기간에도 방역기를 비치해 소독해 왔고 손 세정제, 마스크 등 위생 물품 700여개 배부, 홍보물 3종 50여점을 부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 시설물 일제 보수, 해충방역, 에어컨 청소, 휴양시설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완료했다.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이 제한되면서 지친 마음과 몸을 화순의 산림휴양시설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재개장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방문객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임시 휴관했던 백아산자연휴양림과 한천자연휴양림을 지난 11일부터 부분 재개장했다. 사진은 백아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화순군 제공>

나주배 가공·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엘빈즈·좋은영농법인과

나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배 가공식품 업체인 ㈜엘빈즈(대표 한운재), 좋은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선)과 ‘나주배 유통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엘빈즈는 100% 나주 배로 만든 ‘어린이 배 도라지’, ‘배 도라지 워터젤리’ 등을 판매하는 충남 계룡시 소재 영·유아 이음유치 유통업체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지역 업체로 HACCP(해썹) 인증을 통한 ‘배 도라지 주스’ 등 배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나주 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엘빈즈와 좋은영농조합법인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2년 간 나주 배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비롯해 맛과 효능의 우수성 홍보, 소비·유통 활



성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안정적인 배 공급과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2년 연속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1위

장성군이 2년 연속 전남도 쌀 생산성 1위를 달성했다. 1단보(992㎡)당 491kg의 쌀 생산이다.

장성군은 쌀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기술 지원을 한 결과, 지난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성군은 쌀 재배 과정에서 경화장, 상토 및 매트, 맞춤형 비료, 육묘상자 처리제, 액상규산, 건조기, 지게차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우수한 벼 보급종 공급률도 높은 수확량을 거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남도 내 벼 보급종 공급률은 종자 총 소요량 대비 40% 가량이나, 장성군은 두 배 높은 80%다. 이로 인해 재배 초기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병해충 피해는 ‘공동 방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

다.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사용해 단위별로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인 ‘병해충 공동방제’는 장성군이 일반벼 재배 모든 면적에 대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방제법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적기 방제가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쌀의 소비자 확보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한아름찰벼·흑찰 등 가공용 쌀 및 특수미 생산단지 시범 사업을 추진해 장성통합RPC와 CJ브리딩을 연계,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꾸준히 추진해온 쌀 농업 관련 맞춤형 지원이 ‘2년 연속 도내 쌀 생산성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농업인의 맘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장성 쌀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